



정부, 7대 종단 평신도와 함께하는 생명지킴 활동 본격화

- 범정부 생명지킴추진본부, (사)한국사회평화협의회와 협력회의 개최 -

□ 국무조정실 범정부 생명지킴추진본부(본부장 송민섭, 이하 생명본부)는 7월 15일, (사)한국사회평화협의회*(회장 김진택, 이하 한사평) 관계자와 함께 ‘자살 예방과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협력회의’를 개최하였다.

* 종교 간 화합을 바탕으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고 나눔과 상생의 가치를 실천하기 위하여 2018년 설립된 7대 종단 평신도 연합단체(기독교, 불교, 원불교, 유교, 천도교, 천주교, 한국민족종교협의회)

□ 이번 협력회의는 우리 사회의 자살 문제 해결을 위해 종교계와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자 마련되었다.

○ 그간 주요 종단과의 협력회의를 통해 성직자 중심으로 자살예방 활동을 추진해 왔던 것에 더해, 이번 회의에서는 7대 종단 평신도들이 생명지킴 활동의 주체가 되어 자살예방 활동을 실천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는 데 협력하기로 하였다.

□ 생명본부는 한사평이 개최하는 이웃종교 화합활동 등 주요 행사를 계기로 자살예방 메시지를 확산하고, 종교별 방송과 신문, 소식지 및 SNS 등을 활용하여 동료 신도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자살예방 활동을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.

○ 특히 평신도를 대상으로 자살예방 인식개선 교육과 생명지킴이 활동 참여를 확대하고, 신자가 동료 신자에게 자살예방 활동 참여를 권유하는 생명지킴이 활동을 확산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.

- 한사평 관계자들은 “자살은 우리 사회가 함께 극복해야 할 공동의 과제”라며 “종교의 차이를 불문하고 평신도들이 신자와 이웃을 돌보는 생명지킴이 역할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한사평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”고 화답하였다.
- 송민섭 법무부 생명지킴추진본부장은 “종교계 평신도들은 우리 곁 가장 가까이에서 활동하는 소중한 인적 자원”이라며, “종교간 화합의 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풀뿌리 생명존중 문화가 더욱 확산할 것으로 기대된다”고 밝혔다.

※ 우울감이나 극단적인 생각으로 힘들거나,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다면 자살예방 상담 전화 ☎109, 청소년 상담 전화 ☎1388을 통해 24시간 언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



담당 부서	국무조정실	책임자	과 장	이효식 (044-200-6369)
	법정부 생명지킴추진본부	담당자	사무관	김봉주 (044-200-6387)